



광주 도심에서는 지하철 역사(驛舎)도 소중한 관광·문화자원이 된다. '문화 지하철'을 지향해온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1역사 1특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덕분이다. 문화수도의 중심부를 관통해 광주의 문화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지하철에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호남문화를 토대로 다양한 테마역이 조성돼 있다.

41 광주 '문화 지하철'

빛고을 문화·예술 실어 나르는 '보석상자'



❶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철역(驛)에 개설된 '인권테마관' ❷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사진과 신문기록, 유인물, 포스터 등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동구 문화전당역 '5·18기념홍보관' ❸ 호남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는 농성역 '호남학전시관' ❹ 지난달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열린 '제53회 호남예술제 수상작 전시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5·18 기념홍보관(문화전당역)=5월 민중항쟁 정신을 생활 속에서 되살리는 민주화 교육 및 문화의 공간으로 지난 2006년 5·18 광주 민주운동 26주년을 맞아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문화전당역 지하 3층에 조성했다. ▲항쟁의 장 ▲역사의 장 ▲민주화의 장 ▲문화의 장 ▲5·18 실록 등 5개 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진과 신문기록, 성명서, 유인물, 포스터 등 5·18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유적지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멀티영상시스템 및 터치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의 고귀한 냉이 살아 숨쉬는 옛 전남도청 지하에 자리잡은 홍보관은 5·18이 낮선 젊은 세대와 외지 방문객들에게 숭고한 학생 정신과 새로운 희망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금남로5가역)=공사측이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광주 정신을 알리는 교육·문화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개요 및 역사적 배경, 전국적 파급 과정 등을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한다.

5·18·인권·호남학 등 각종 테마관 조성

문화 수도 관통…전시 공간·예술 무대도

특히 금남로5가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기념역사관이 주변에 자리잡고 있고, 학생독립운동의 현장인 광주 제일고와 인접해 관련 유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호남학 전시관(농성역)=전남대 호남학연구단과 공동 기획으로 지난 7월 말 개설한 호남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 상설전시관. 호남의 문화원형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츠화한 100대 문화원형 소개와 호남대표

인물 및 사건 관련 애니메이션 상영, 호남학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강의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100대 문화원형에서는 고인돌과 소쇄원, 왕인박사, 대나무, 삼벌초, 동학혁명 등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호남의 자연, 유형문화, 인물, 사건, 생활문화, 종교, 민속, 문학과 예술 종합 분야의 100가지 대표 문

화 콘텐츠를 개발전략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윤상원과 블블7열사', '호랑이장군 김덕령', 조선 후기 새로운 화풍의 선구자 윤두서를 다룬 '윤두서이야기, 자화상을 찾아라' 등 3편의 애니메이션을 상영,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의 민속, 인물, 건축에 대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e-learning' 강의 체험 등도 함께 진행한다.

◇ 인권테마관(김대중컨벤션센터역)=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인권 교육·홍보 공간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지하 1층 335㎡에 조성한 인권전시관. 자자체

와 중앙 행정기관이 인권을 매개로 해 벌인 최초의 공동사업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무상으로 장소를 대

여하고, 광주시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개설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인권 관련 예술작품이 전시되며, 시민들을 위한 참여 공간과 공연장 등이 마련돼 있다.

◇ 다양한 전시공간과 예술무대=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문화인들의 삶과 예술을 기리기 위해 송정지역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 기념관, 송정공원역에는 '용아' 박용철 시인 기념관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역의 대합실에 패널이나, 독립부스 등을 설치, 생전의 사진과 유품, 작품 등을 전시하는 구상이다.

공사측은 또 예술단체와의 협약, 자원봉사 공연자 모집, 지역예술인과 아미추어 예술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 역사에서 음악·미술·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지하철 예술무대'를 연중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18개 단체, 250여명의 자원봉사 예술인들이 무대를 꾸며왔다.

공연 무대는 상무역과 농성역, 양동시장역, 금남로4가역, 남광주역 등에, 전시 공간은 금남로4가역 지하 1·2층, 농성역, 운천역, 상무역 등에 마련돼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관광 퀴즈이벤트 8만명 참여'

광주시가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실시한 온라인 흥보에 전국 네이티즌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시는 퀴즈를 풀면서 광주 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7~10월 '광주 관광 퀴즈이벤트'를 펼친 결과, 전국에서 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공동으로 실시한 UCC이벤트에도 2천명에 가까운 네이티즌이 참여했다.

시는 퀴즈 이벤트 참여자 2천500여명에게 광주의 대표적 축제인 김치축제를 떠올릴 수 있는 김치냉장고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시는 올해 광주 관광 흥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공중파와 케이블TV, 수도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을 찾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참여형 흥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